

# 김관영 “이원택, 정청래가 시켜 출마” 무소속 강행 ‘정면승부’

## 이원택 후보 경찰 조사 출석

이후보 “경선 흔들기 기획 사건” 주장  
제3자 결제 요청 의혹 전면 부인

6.3 지선 D-26

7일 기자회견서 이원택·당 직격  
“정청래 결정 도민 선택권 박탈”  
27조 투자유치 성과 앞세워  
“반드시 민주당 돌아가겠다”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 지도부와 본선 경쟁자인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아닌 전북도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다”며 도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 후보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출마의 명분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믿어왔지만 공천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CCTV 문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12시간 만에 현직 도지사를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제명된 것은 도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상대 후보(이원택)가 본인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가라고 했다고 말하고 나왔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번 공천 과정이 어떤 의도를 기획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정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해명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경선 전 한 식당에서 청년들에게



김관영, 민주당과 ‘전면전’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성민 기자>

대리운전비를 건네는 장면이 공개돼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전주에 사는 사람은 2만~3만 원, 군산·익산은 5만 원, 정읍·고창·임실은 10만 원씩 차등 지급했다”며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으나, 식사 자리가 끝나기 전에 불찰임을 깨닫고 즉각 회수를 지시해 상당 부분이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4년 도민과 같이 뛰 결과 현대차 9조 원 투자를 포함한 27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등 ‘전북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깬다”면서 “피지컬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바뀌고 있는

전북의 산업지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연대’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무소속 연대는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도민의 심판을 받은 뒤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선거 승리 후보당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당내 경선에서 안호영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한 이원택 의원과 현역 프리미엄을 쥔 무소속 김관영 후보 간의 거대한 세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최성민 기자



이원택 후보

주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받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전북경찰청에 나와 “이번 사건은 식사비 대납 진술을 허위로 조작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려 한 기획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결제 여부와 관련, “당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누가 결제했는지 알지 못하고 사전에 누군가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거듭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또 “제 개인의 양심에 대답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원택 후보는 지난해 청년들과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제3자가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3자 기부행위 제한)로 고발된 이 후보와 당일 식비를 사비와 도의회 위원장 카드 등으로 결제한 김승지 도의원을 불러 수사했다.

/장정철 기자

## 이수진 무소속 출마...“무투표 악순환 끊겠다”

도의원 7선거구 출마 공식화  
“도민 믿고 무소속 강 건널 것”  
내주 중 국민의힘 탈당 예정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이 6·3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이 도의원은 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민주당 후보들



이수진 도의원

의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전북도의원 제7선거구(호자5동)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저는 제

이름과 책임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도민만을 믿고 거침없이 탄핵의 강을 건넌다”며 “도민만을 믿고 무소속의 강을 건너겠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탈당은 다음 주쯤 생각한다. 30년 넘게 비정상으로 온 민주당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패턴을 바꿀 때는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 민주당, 김의겸·박지원 전략공천 확정

민주 군산김제부안 재보선 공천  
갑 김의겸·을 박지원 후보 낙점  
박지원 ‘차세대’ 상징성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공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후보



박지원 후보

박 최고위원은 상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와 전주시체육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의겸 전 청장은 군산출신으로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 후보 경선에서 신영대 전 의원에 석패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노홍석 권한대행 체제 돌입 “도정 공백 없다”

### “선거 핏계 소극행정 안돼” 강조 국가예산·공모사업 총력 대응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속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 박차

도는 7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장 등 주요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현안 대응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직무정지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전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도민들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홍석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시기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을 핏계로 주요 현안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소극행정 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각 실국장 책임 아래 소관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휘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 소동을 통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대형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도정 역량을 총동원한다.

5월 말 부처 예산 편성 마감과 5~7월 공모사업 결과 발표 일정에 맞춰 지휘부 중심의 전방위 부처 방문을 전개하고 쟁점 사안별 맞춤형 설득 논리를 구축해 지역 핵심 사업을 선정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도 펼친다. 도 주도의 실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보강해 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7일 노홍석 권한대행 주재 간부회의

<사진=전북도>

이전 대상 기관의 동향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입지 확보를 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고물가 속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피해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신속 집행할 것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주요 간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한편 진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각 실국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 민주 도당 광역비례 순번 확정...1순위 윤해아

### 윤해아·박수형·강정희 순 장애·청년 등 다양성 반영



윤해아 후보

사회적경제 기업전문가이다. 4순위 박병철 후보는 한국노총 전주지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 현장 가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당 선관위는 4일 전북도당 컨퍼런스룸에서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이어 5-6일 전북도당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방식을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순위 결과는 1순위 윤해아(27), 2순위 박수형(36), 3순위 강정희(59), 4순위 박병철(57), 5순위 안용주(59), 6순위 송승룡(50) 후보 순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 1순위 윤해아 후보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인물이다. 2순위 박수형 후보는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 전북청년리더 핵심주체로 활동해 왔다. 3순위 강정희 후보는 전라북도 미용 관련 명장 1호 출신이며

힘써왔다. 5순위 안용주 후보는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30여년 활동하면서 생활정치 중요성을 대변해 왔다. 6순위 송승룡 후보는 탄소수소 전문가로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순위 결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1순위 윤해아 후보다.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고 균형 있는 정책 실현을 원하는 권리당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1순위 결정으로 장애인 포용 정치 실현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출발점이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 광역비례대표는 총 6석이며 6.3 지방선거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새만금SOC·AI산업 정부예산 반영 ‘총력전’

### 노홍석 권한대행, 세종 현장 대응 국토부·대광위 잇단 방문 설득 새만금 SOC·광역교통망 등 건의

전북도가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을 앞두고 새만금 SOC와 광역교통망 확충,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도는 7일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앙부처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됐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이차전지 기업 집적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전략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먼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대광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구축사업’ 16개 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조 3,850억 원 규모로, 전북 광역권 교통혼잡 해소와 생활권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이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주요 국도 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비 반영 등을 건의하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



7일 대광위 면담

<사진=전북도>

한 5대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새만금 신항 집안 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온디맨드 제조 특화 AI전담 교육센터 운영 ▲한국형 필드데이터 활용 상용차 전동화 지원 기반 구축 등이다.

이에 대해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새만금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전북의 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북 핵심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김제·순창, 기업 협업 인구감소 대응 공모 선정

### 순창군 신선식품 배송·돌봄 결합 김제시 못난이콩 고부가가치화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김제시·순창군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5개 선정 대상 중 ▲순창군(신선식품 배송 분야)과 ▲김제시(지역특산물 활용 분야) 2개 사업이 선정돼 각각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기아자동차(KIA)의 카고형 전기차(PV5) 차량 2대를 활용해 행정리 단위까지 직접 찾아가는 신선식품 배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도모한다.

아울러, 순창군은 배송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을 위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형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접근성 개선은 물론,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면 단위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코레일유통과 손잡은 김제시는 전국 최대 농산물 주산지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선별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낮아 저가로 처분되던 반태콩(파쇄콩) 및 못난이콩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반태콩 업사이클 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반태콩을 원료로 한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주요 KTX 상권에서 판매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SNS 홍보 마케팅에 주력해 MZ세대와 건강에 관심이 높은 3070세대 대상으로 김제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철원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지역 자원을 결합한 이번 협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선도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직원 고용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등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내용은 자영업자가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이며, 개인별 지원 개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신청자는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실업급여

와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1



### 손씻기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기

2



### 익혀먹기

육류, 생선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3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 ‘백년시장’ 전주 남부시장 상인·주민 ‘한자리에!’

## 백년시장 상인 네트워크 대회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 구축

전주남부시장 상인들과 인근 지역 주민이 함께 한 ‘백년시장 상인 네트워크대회’가 개최됐다.

시의 ‘백년시장 상인 네트워크대회’는 지역 협업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와 지속가능한 시장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 △특성화시장(백년시장)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 △남부시장 상인 △전문가·행정·지역 협업기관 등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지난해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시장 육성 사업’ 시작과 함께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



위한 소통 등이 진행됐다.

행사는 오귀성 남부시장 상인회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백년시장 사업 소개 △협업주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유 발표 △상인 참여 의견 공유 △지역 연계 MOU 체결 △향후 일정 안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네트워크 대회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영상 참여와 스티커 투표, 메시지 보드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됐다.

관련해 시와 사업단은 네트워크 대회를 시작으로 △인프라 개선 △리빙랩 및 팝업스토어 △남부시장 콘텐츠 기반 상품개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 자생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단은 앞으로 전주시 민간 협업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콘텐츠·공간·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7월 창대리더린이집(우아동 소재) 원아들의 복지사각지대 지원 위한 성금 100만원이 전주시복지재단에 기탁됐다 <사진=전주시>

## 전주시 아이들이 모은 ‘성금’ 감동으로 이어져

창대리더린이집 원아들, 아나바다프리마켓 수익금 기탁

전주시 아이들의 작은 정성이 성금 전달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감동이 흐르고 있다.

7월 창대리더린이집(우아동 소재) 원아들의 복지사각지대 지원 위한 성금 100만원이 전주시복지재단에 기탁됐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지구를 살리는 아나바다 프리마켓’을 통해 마

련됐다. 프리마켓에서 아이들은 먹거리와 신발,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직접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아이들의 나눔 가치는 전주시복지재단 ‘2026년 백만천사 15호’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기탁된 아이들의 성금은 위기에 놓인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JICA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최종 선정

## 농식품 등 지역 특화산업 중심 AI 신뢰성 실증 본격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JICA)이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전주는 전국 14개 SW품질역량센터가 있는 ‘AI 신뢰성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

JICA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향후 4개년

500억원 규모의 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첫 단계이다.

사업비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법적·기술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투입된다.

JICA는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신뢰성 실증 전담 △전국 지역 확산 기반 조성 전략 수립 △AI 신뢰성 향상 및 확보 컨설팅 협력 △AI 신뢰성 실증 인프라(센터) 구축 △AI 신뢰성 인식제고 및 우수 성과 확산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JICA는 TTA와 함께 지역 내에서 AI 기술 기업이 고난도의 AI 신뢰성 실증과 인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 AI 신뢰성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TA는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 기관으로서 AI 신뢰성 분야의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AI 신뢰성 향상 및 확보 컨설팅, 검·인증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품질 검증 등을 수행해 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모빌리티·기계부품, 에너지, 제조, 피지컬AI, ICT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AI 신뢰성 검·인증을 집중 지원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이 AI 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역 특화형 AI 신뢰성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산 기반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JICA는 오는 6월 지식산업센터 내에 ‘AI 신뢰성 혁신 실증센터’를 개소해 GPU 서버 등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 모집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 신고 대상·포상금 확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 강화는 5월 8일자 한정수 도의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신고 대상 시설에 아파트등을 포함해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화재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 정지시키는 행위, 방화문·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향됐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연간 5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신고 1건당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유지된다.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농자재 반값지원 사업’ 추진

### 5억 투입 영농 전 농자재 공급예정

전주시가 영농철 농자재 및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총 5억원을 투입해 ‘농자재 반값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해 시는 △중저산 △모관상토 △비

료 △육묘판 등 5종 농자재를 영농 전에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지난달 첫 육묘 시작부터 본격적인 육묘 시기인 4월 중순-5월 말까지 전주시역 8개 공동육묘장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전년 동시기 고온과 잦은 강우로 밭식 여름이 평년보다 좋지 않은 벼 종자에 대해서는 △밭이울

80% 이상 여부 확인 △중저산토 △온도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중동지역 분해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적정시비를 통한 비료 사용절감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적정시비, 비료 사용처방서 발급, 퇴비액 활용 확대 교육 및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본격화

### 베트남 손라성과 협력 구축 올해 본격 도입 준비 착수 현장 중심 실행 기반 마련

전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 준비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 손라성과의 협약 체결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실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도입은 최근 농촌 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역의 경우 미나리 등 노동집약적 작목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베트남 손라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근로자 선발·교육·송출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전주시역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

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제 도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해 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농가 수요 기반 도입 규모 설정 △근로자 배치 및 관리체계 구축 △숙소 및 생활여건 점검 △비자 및 출입국 절차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입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과 해외 MOU 방식을 병행하는 단계적 도입 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관련 도비 확보 및 시비 편성을 통한 재정 기반 마련과 전담 관리 인력 확보 등 행정 지원체계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2026년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전북경찰청은 ‘2026년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을 7일 개최했다.

위촉식은 가정의 달 어린이들의 안전 등·하곳길 조성을 위해 전북경찰청 소통마당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영 전북경찰청장과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헌신해온 전임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올해 새로이 선출된 2026년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들에

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가 1건으로 전년도 8건 사고 발생 대비 8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녹색어머니들과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전북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전북대 축제 ‘현장 안전 확보’ 총력

### 인력 83명·차량 9대 투입

전주덕진소방서가 ‘2026 전북대학교 건지 대동제’ 축제장 전반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확보는 축제가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83명의 인력과 9대의 장비를 투입해 긴급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대운동장 내에 현장지원소(CP)를 설치하고, 매일 밤 공연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금암119안전센터의 펌프차와 구급차를 문화루와 대운동장 등 인파가 집중되는 요충지에 전진 배치했다.

이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복잡한 축제 인파를 뚫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전략이다. 총 42명의 대원이 참여해 야시장과 대운동장 일대를 2인 1조로 순찰하며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취약 시간대 순찰을 통해 화재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8일까지 ‘알림의 거리’에서 소방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심폐소생술(CPR) 등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입을 방화복 착용 체험 등 즐거운 축제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노인 건강맞춤형 저염·저당 도시락 제공

전주시 노인·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영양더하기 사업’이 한 단계 강화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도시락 맛과 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특별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와 주민센터 통합돌봄 담당 실무자, 서원·전주시니어

클럽 관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시식단은 서원시니어클럽(저염식)과 전주시니어클럽(저당식)이 만든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식단 구성의 적절성 △음식의 맛과 양 △용기 및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장애인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영양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서원시니어클럽은 ‘저염식’, 전주시니어클럽은 ‘저당식’을 생산함으로써 차별화된 질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된다.

또 사업은 동년배인 노인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함으로써 ‘노노(老老)케어’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

/정소민 기자

# 전북TP, 인구감소지역 기업 성장 돕는다

## 김제·순창·남원·장수 유망 기업 지원 나서 27일까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의 2차 참여 기업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추가 모집한다.

2차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도내 4개 시·군(김제시,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이 힘을 합쳐 지역 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 연구자원을 활용할 혁신 기업을 더욱 폭넓게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4개 시·군 관내에 분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면서, 각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연구 산업 관련 분야의 전·후방 기업이다.

각 지역별 중점 연구 산업은 △김제시(특장차) △순창군(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농생명식품) △남원시(그린바이오) △장수군(레드푸드 및 스마트 농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 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범분석 및 인증 획득, 기술지도, 공정 개선 등의 개별 지원 항목이나 패키지 지원 중에서 자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골라 신청하며 최종 선정 시 기업당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수군 소재 S사는 디자인개발 지원과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년도 매출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17%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또 순창군 소재 J사는 시제품제작지원, 공정개선지원, 마케팅지원을 통해 주요 3사 편의점 입점에 성공하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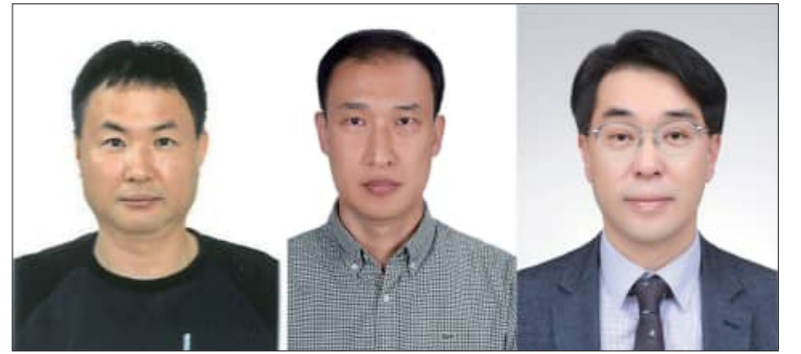
출업체와의 판로 확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2차 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일괄 진행된다.

세부 지원 조건 및 공고문은 전북테크노파크 공식 홈페이지 또는 RM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안내는 각 시·군별 사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왼쪽부터 최희태 팀장, 유윤화 과장, 장문호 팀장 <사진=전북농협>

## '새로운 농협인상' 남원축협 최희태 팀장 수상

전북농협 모범직원 2명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7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 최희태 팀장이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농협인상'은 변화와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농촌·농협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에서 약 10여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최희태 팀장은 2014년 입사 이후 지도 및 경제사업 분야를 담당하며 △조합원 건강관리 지원 등 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인 복지 증진 △관내 취약계층 대상 축산물 나눔행사를 통한 사회공헌 실천 및 소비촉진 확대 △축산물 부산물의 체계적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축산 운영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농협 가정의 달 모범직원 2명 수상 영예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모범직원 상에 전북농협 유윤화 과장과 익산농협 장문호 팀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정의 달 모범직원 상은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와 가족 사랑을 몸소 보여준 직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0명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2명의 직원이 포함됐다.

유윤화 과장은 슬하에 3자녀를 둔 다동이 아빠로서, 배우자의 업무 여건을 배려해 가사와 육아에 적극 참여하며 가족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연로하신 홀어머니와 장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는 등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18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조직 내 신뢰도가 매우 높다.

장문호 팀장은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는 배우자를 5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익산농협의 여신 사업 성장을 주도해왔다.

특히, 파킨슨병을 앓는 노모까지 병행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후배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조직 내 훌륭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 'ESG 경영' 최고등급 획득

## ESG 경영체계 성과 인정 임직원 결실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중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이 시행한 'ESG 경영 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Level 3을 획득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 금융복지상당 및 맞춤형 금융교육'에서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ESG 경영수준 진단결과는 전북신보가 그간 지역 맞춤형 ESG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인증은 정보공시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분야의 ESG 경영체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이며 전북신보는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Level 3'을 획득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보증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ESG 녹색기업 특례보증 운영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등 정책금융 기능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가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북신보는 "전북자치도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중관 이사장은 "이번 인증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전 임직원들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사진=전북신용보증재단>

말했다.

한편 '사회적 금융복지상당 및 맞춤형 금융교육'은 전북자치도와 지역상생 포용금융을 실천하고자 협약해 전북자치도의 위탁을 받아 시행중이다.

/김영태 기자

# 건설협회 전북도회 '제11회 사랑 나눔 회원의 날' 성료

## 나눔과 공동체 문화 확산... 사회적 가치 실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회원사 대표이사 150여명과 함께 공동체 문화 확산 통한 공동체 나눔 의식을 함양했다.

지난 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150여명은 전주 상그릴라 C.C.에서 '제11회 사랑 나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제11회 사랑 나눔 회원의 날' 행사는 회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손태홍 실장이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2.0'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손태홍 실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 재탄생 2.0 전략에 대한 종합적 방향과 함께 기술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서 인

공지능·로봇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제11회 사랑 나눔 회원의 날'은 소재철 회장과 회원들이 남부한 참가비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함으로써 나눔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

이날 소재철 회장은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이어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물량 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



<사진=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

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해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4 공개

아시아 최고 수준 데이터 확보

농진청(청장 이승돈)은 국민 생활 변화와 식품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3366점에 대한 130종, 30만 4853건의 영양성분 정보 담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4'를 공개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 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보완을 거쳐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4는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10.3(식품 3,330점, 영양성분 정보 약 29만 건) 보다 고도화했다.

최근 소비 흐름과 산업 변화를 적극 반영해 '미호', '새침무' 등 가공용 및 신제품 쌀을 비롯해 식물성 너깃(nugget) 등 대체식품, 과채 착즙 식품 등 79점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올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바이오진흥원 "바이오산업 현장의 소리를 듣다"

제15회 바이오지식포럼 개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6일 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15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바이오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생명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방향을 모색하고, 최신 바이오·디지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내 식품기업, 혁신기관 임직원, 전북자치도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은 전북자치도가 농생명·바이오 패권을 확보하고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된 지식포럼이며, 문샷(Moon shot)은 1969년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하는 말로 지식포럼 개최의 근본 의지를 담은 표어이다.

포럼에는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Digital Healthcare 2026 : Age of Generative AI'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나 소장은 기존 인공지능 기술이 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생성형 AI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제안하고 생성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은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통찰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바이오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이해하고, 전북 생명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통해 바이오, 푸드테크, 의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북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건강관리協 전북지부 '플로깅' 전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엄진영)는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천 환경 정화 활동 '플로깅'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은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관광객 이동이 잦은 한옥마을을 주요 거리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꽂초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탄소중립 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건협 전북지부 엄진영 본부장은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인 한옥

마을을 쾌적하게 가꿈으로써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플로깅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 의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공익 의료 사업을 병행하며,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중기부, 창업기업·소공인 협업 과제 선정

43개 최종 선정·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창업기업과 소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협업 과제 43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제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아이디어와 시장기획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실제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연결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는 창업기업이 맡고 제작은 소공인이 수행하는 협업 방식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히 제작을 맡기는 방식에서 나아가, 공동 기획과 반복적인 설계

보완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협력기업을 확보하고, 소공인은 새로운 고객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계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소공인 자료를 축적하고(데이터베이스), 창업기업·제조기업 간 연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공정, 소재, 제작 가능 범위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설비 수준과 정밀도 등 심층 정보는 창업기업·제조기업 간 연결 이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협력기업 탐색 부담을 줄이고, 소공인에는 지속적인 시제품 제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 천호성·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 이남호천호성 1대1 구도 단일화 직후 '자리 흥쟁' 녹취록 폭로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호성·유성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천호성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전북교육감 선거는 이남호·천호성 예비후보의 양강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천호성·유성동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책 연대와 단일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단일화 선언문에서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과 결단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북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공동체 회복 △미래 교육 대비와 창의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단일화 선언 직후, 유 후보 캠프의 총괄전략본부장 A씨가 단일화 이면의 '자리 거래' 정황을 폭로했다. 유 후보가 천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대가로 교육청 핵심 보직인 정책국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와 유 예비후보의 통화 녹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유 예비후보는 A씨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한다면, 아성동이 관장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정책국장 자리 약속은 없었다"고 일축했으며, 천 후보도 "이번 단일화에서 '매관매직' 약속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

##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전국유도대회 메달 획득

5개 메달 목에 걸어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개인전에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개인전 57kg이하급 이재란선수는 결승에서 안산시청 선수를 압도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이현 선수(-78kg)와 라희원 선수(-52kg)는 은메달, 서수빈 선수(-63kg)와 박서윤 선수(-48kg)도

동메달을 보태며 고창군청 여자유도부의 두터운 전력을 과시했다.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된 훈련 환경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리는 2026 양구전국실업 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전북대 '무전공 75% 확대' 학사 개편... 경쟁률·합격선 ↑

## 기존 106개 모집단위 46개 통폐합 성과

전북대학교가 전체 입학 정원의 7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한 결과, 2026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지원자 수와 경쟁률, 합격자 내신 성적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7일 전북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르면, 수시모집 지원자는

총 2만4760명으로 2025학년도(2만3876명)보다 884명 늘었다. 전체 종합 경쟁률은 7.6대 1에서 7.8대 1로 올랐다. 합격자들의 성적 지표도 올랐다. 최종 등목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2025학년도 3.79등급에서 2026학년도 3.68등급으로, 지원자 평균 등급은 4.22등급에서 4.17등급으로 각각 상승했다. 특정 학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주요 전형 전반에서 평균 등급이 올랐다.

이러한 지표 상승은 기존 106개였던 모집단위를 46개로 통폐합하고, 전체 입학 정원의 75.9%인 2920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 조치에 따른 결과다. 신입생 구성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 출신 학생의 지원 및 등록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구조 개편은 재학률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도 도입 첫해 무전공으로 입학한 2025학번의 2학년 진급 재학률은 62.7%를 기록

해, 기존 단위별 모집 체제였던 전년도(60.5%)보다 2.2%p 상승했다. 이들 중 전체 대상자 2770명의 82.5%가 1지방 전공에 배정됐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사구조 개편이 지원자 증가와 경쟁률 상승, 성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복수·부전공을 확대하고 전과 비율을 상향하는 등 학생들의 전공 선택 경로를 다층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군산문화관광재단, YG와 문화격차 해소 '맞손'

군산문화관광재단, YG엔터테인먼트,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협력형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PROJECT YOURSIDE 군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중문화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PROJECT YOURSIDE 군산'의 기획·운영 및 원활한 추진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체험형 문화콘텐츠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군산에 유치함으로써, 평소 대중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군산=임근석 기자

# 전북체육회-재베트남 대한체육회, 상생발전 협약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재외 동포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베트남 대한체육회가 상생발전 및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도 체육회는 지난달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등 8개 재외한인체육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이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 도 체육회는 올림픽 유치 범 조성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전북도와 한인 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 교류를 비롯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베트남 대한체육회 박희영 회장은 "전북체육회와 교류를 맺게 돼 영광이다"라며 "베트남에서도 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 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우정과 상생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이남호 "악성 민원 교육청이 전담"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악성 민원 직접 대응과 행정업무 감축을 골자로 한 '교사·교관·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스쿨 로이어(School Lawyer)'를 배치해 일선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교관 침해 발생 시 72시간 내 법률 지원 등 보호 패키지도 제공한다. 교사 행정업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주당 3시간 수준으로 감

축한다. 이를 위해 'AI 행정비서'를 도입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학교업무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5년 이상 교사에게 '수업연구 안식 학기제'를 도입하고, 신규 교사는 첫 1년간 행정업무에서 전면 배제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을 학교를 돕는 파트너로 바꿔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오는 10일 익산시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전국 배드민턴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스포츠도시 익산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친다.

익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6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대학·일반부 경기가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와 익산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다. 전국 각지에서 대학·일반부 선수와 임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 일정은 △대학부 10~17일 △일반부 12~19일이며, 선수들은 남녀 단식·복식과 혼합복식 등 종목별 경기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시는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익산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도시 익산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운영단체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도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2026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의 운영단체를 오늘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북 14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총 4개소 내외의 운영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로 약 4천 만원에서 7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3개 권역은 각각 △내륙권 △동부권 △서

부권이며, 해당 권역 내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오후 5시 59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27일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육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빛나는 청춘사진관' 추진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천규)는 7일 옥산면 경로당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2026 빛나는 청춘사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시나마 옛 추억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빛나는 청춘사진관' 사업은 호원대학교 뷰티학과 전공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회원 10여 명이 헤어 및 메이크업의 봉사 활동에 참여해 관내 읍·면지역 경로당 10개소와 인피면 인피향교총현복체육센터에서 약 32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산의 대표 관광 체험 콘텐츠인 추억의 '옛날교복'을 활용한 사진촬영을 진행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이 화상지정을 떠올리며 교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이색 체험과 헤어 스타일링 및 메이크업, 컨셉 사진 촬영을 통해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송천규 센터장은 "따뜻한 마음과 재능을 나누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활동이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시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강화

익산시가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나선다.

익산시는 기존 시민정보화교육과 디지털 배움터를 통합하고, 시청 지하 1층 시민공간 내 시민정보화교육장에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시민 누구나 쉽고 체계적으로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교육 기능을 한곳에 모아 시민 접근성과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교육과정은 △AI·디지털 이해와 윤리 △AI·디지털 실생활 활용 △AI·디지털 생활·공공서비스 △AI·디지털 안전·신뢰 △AI·디지털 창작·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AI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 또는 익산시 디지털거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운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산시민 누구나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사·빅데이터 활용 위기 대응 전산 실무 교육 진행

정읍시는 7일 시청 제2청사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대용량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대응 전산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위기대응 스마트 복지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최신 기능을 선제적으로 익혀 중앙의 정책을 지역 현장에 빈틈없이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교육부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현장 담당자들은 복지부의 복지 위기 알림, 인공지능(AI) 초기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참석자들은 위기 징후 거구에 대한 인공지능 상담 결과 분석부터 위기 알림 응용 프로그램 제보 처리, 대용량 정보 기반 위기 정보 조회까지 실무 전 과정을 깊이 있게 익혔다.

시 관계자는 "중앙의 첨단 복지 체계를 현장에서 빠르게 이식해 더욱 촘촘하고 신속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첨단소재 생산기지 준공

(주)나노솔루션, 177억 투자... 고용 창출 및 지역 산업 기반 강화

익산시 제3산업단지에 첨단소재 생산기지가 들어서며 지역 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7일 (주)나노솔루션이 익산시 제3산업단지 내에 조성한 익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형열 나노솔루션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첨단소재 생산기지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주)나노솔루션은 2025년 3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익산시 제3산업단지 2만 4,394㎡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자해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전극 소재인 탄소나노튜브 및 분산액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이번 투자로 27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익산에 조성된 생산기지는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안



<사진=익산시>

정적인 생산 역량과 공급체계를 바탕으로 첨단소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열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생산기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익산과 전북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나노솔루션 익산공장 준공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하

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나노솔루션은 탄소나노튜브와 기능성 나노물질 분산액, 응용제품 등을 개발·양산하는 기업이다.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소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업계 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인 육상경기장 조성 박차

전국 대회 유치 목표 부속시설 확충 막바지

정읍시가 전국 규모의 육상대회 유치와 시민들의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정읍종합운동장 내 제2종 공인 육상경기장 부속시설 조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운동장 육상 트랙(400m·8레인) 정비와 보조경기장, 필드 종목 시설 등 공인 규격에 따른 주요 시설 조성(21개 항목 중 17개 항목)을 마쳤다.

이어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인 '제2종 공인 육상경기장' 승인을 위한 마지막 파급인 부속시설 건립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사진관독실, 육상 용기구 창고, 화장실 등 부속시설 3동 건립 △스타팅 블록 등 전문 육상 용기구 131종 구입 등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시설과 장비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 시는 대한육상연맹에 '제2종 공인 승인'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육상경기장의 제2종 공인 취득은 정읍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인 육상경기장 확보를 통해 전국 규모의 육상대회를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귀농하우스' 실제 정착 성과 특목

10세대 규모 운영... '주거 지원 강화할 것'

익산시 '귀농하우스'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7일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인 귀농하우스를 방문해 운영 실태와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귀농하우스는 농촌 이주를 희망하지만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10세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귀농 희망자들은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농지와 주택을 탐색하는 등 안정적

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다. 시는 2020년부터 귀농하우스를 본격 운영해 현재까지 총 45세대 70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17세대 26명은 임시 거주 종료 후 실제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해 약 38%의 정착률을 기록했다.

이날 최재용 부시장은 시설 노후화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유지와 내실 있는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귀농하우스 운영이 초기 주거 부담 완화는 물론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임시거주시설이 귀농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살폈다.

익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귀농귀촌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교류와 기초 영농교육 등 실질적인 정착 프로그램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것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귀농귀촌을 결심한 도시민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주거 문제"라며 "임시거주시설은 익산의 첫인상이자 귀농 정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인 만큼,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어르신 650여 명 초청 효행자 표창 및 공연 펼쳐

군산시는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7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650여 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주관했다.

행사는 풍물 길놀이팀 '흥나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와 노인복지유공자 11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를 기렸다.

2부 행사인 '어르신 콘서트'에서는 퓨전국악 공연과 트로트 가수 진해심, 최



<사진=군산시>

유진의 무대가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특별 이벤트

가정의 달 맞아 마련

익산시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5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공원 일원에서 실외놀이체험시설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공원에 조성된 실외놀이체험시설 △롤글라이더 △미로체험공간 △하늘등동 탐험로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미로체험공간과 하늘등동 탐험로에서 촬영한 인증사진

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대표소 직원에게 화면을 제시하면 롤글라이더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설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간격으로 하루 총 6회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반복 안전교육과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품목별연구회 대상 특화작목 교육

정읍시가 기후 변화와 소비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기 위해 관내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총 20여 회에 걸친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새로운 소득 작목 재배 기술 안내, 농가별 맞춤 지도(컨설팅), 다른 지역 우수 농가 방문 견학(벤치마킹) 등으로 짜였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널리 퍼뜨리고 농업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품목 고유의 특성과 정읍의 지역 여건을 꼼꼼히 반영했다.

그 첫 일정으로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제2청사에서 정읍시 멜론연구회 회원 20명을 초청해 맞춤형 전문 교육을 열었다. 강사로 나선 나종대 한국멜론연구소 소장(멜론연구회장 운영)은 품종별 특성부터 생육 단계별 관리, 병해충 대처법, 수확 시기별 주의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읍 맞춤형 재배 지침서를 바탕으로 영농 작업의 핵심을 짚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적합한 특화 작목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에너지 복지 확대 기대

군산시가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상업, 공공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신청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 본인이며, 이미 동일한 에너지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로 문의하면(063-454-4423) 알 수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회계과, 일손 부족 농가 찾아 봉사활동

정읍시 회계과와 장명동 소속 공무원 20여 명은 지난 6일 일손 부족을 겪는 구룡동 매기마을 류현규 씨의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한 해 수확량을 좌우하는 꽃 수확(적화)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기후 변화와 겹친 농촌 인력난으로 제때 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과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고수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산적한 행정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정읍=김정민 기자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모인 직원들은 서툰 솜씨 속에서도 정성껏 복숭아 꽃을 수확했다. 시는 해마다 봄과 초여름 영농철이 되면 이처럼 인력이 절실한 농가를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병철 회계과장과 이미경 장명동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인력이 절실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부안군 부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7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안읍 맞춤형복지팀은 어르신 가족을 직접 방문해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정을 나눴다.

김정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핵가족화, 가족관계 단절, 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독거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태 공공위원장은 “효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이제 민·관의 영역으로 확대된 만큼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부안읍의 어르신들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전했다.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관내 독거노인을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어르신 34명을 초대해 위원들이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한 어르신은 “평소에 대화를 나눌 사람이 많지 않아 적적했는데,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큰 위로가 된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영희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덜고 웃음을 되찾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돌봄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원 발굴 및 후원·연계 사업을 통해 민간이 협력해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속히 발굴·지원하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봉사단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준비한 카네이션과 함께 안부 인사를 전하며 정서적 지지 활동도 함께 펼쳤다.

전달된 카네이션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정성껏 준비됐으며,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를 전달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일부 어르신들은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종합

김제시립도서관 ‘느린우체통’ 운영

1년 뒤 전해지는 편지

김제시립도서관은 성덕우체국과 협력해 ‘느린우체통’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3월 ‘느린우체통’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전용 엽서도 별도로 제작했다. 해당 엽서는 도서관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아 소장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느린우체통은 오늘부터 김제시립도서관 내에 운영될 예정이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이나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엽서를 시작으로 운영되며, 작성된 엽서는 일정 기간 보관 후 1년 뒤 발송된다.

이번 사업은 도서관 이용객들이 도

서관에서의 추억과 일상을 엽서에 담아 작성한 뒤, 1년 후 다시 받아보는 감성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흐르는 일상 속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관을 매개로 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은 “느린우체통은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소중한 기억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은 감동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김제만의 특색 있는 독서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립도서관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6년 마실락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성료

부안의 대표축제인 ‘부안마실락제’의 일환으로 열린 2026년 마실락 청소년 예능경연대회가 전국의 청소년들과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평소 갖고 있던 문화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대중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마실락제 메인무대에서 펼쳐진 본선 무대에는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청소년 11개 팀이 참가했다. 프로 못지않은 화려한 무대 매너와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탄성과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열띤 경합 끝에 영예의 대상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광주광역시 ‘T.PLE’팀이 차지했으며, 상금 150만원이 수여됐다

금상은 네이티브(전주), 은상은 T.A.D CREW(보령), 동상은 밀리언(서울/경기인천), 장려상은 천상(전주), 인기상은 프롬워드(용인/수원), 마실상은 보니타(익산), 이로아스(전주), 아리엘(여수/순천), BUD(부안), 뱅크주니어(광주)팀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김종문 부안예총회장 등이 시상자로 참석해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 용지면 지사협, 가정의달 맞아 이웃사랑 밑반찬 나눔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병삼)가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독거 청·장년 및 저소득층 약 9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반찬에 사용할 식재료를 직접 준비해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상자의 식생활과 영양을 고려한 밑반찬을 마련했다. 또한 제철 식품을 함께 구성해 꾸러미로 준비한 뒤,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눔과 돌봄을 병행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정성을 나눠주는 위원들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밑반찬 나눔을 비롯해 입학선물 지원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무장면 귀농귀촌재능기부단 노후 전등교체 봉사활동 전개

고창군 무장면 귀농귀촌지회(지회장 김채석) 재능기부단이 지난 4일 무장면 일원에서 노후 전등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무장면 귀농귀촌인 10여명이 무장면 40개 마을을 돌며 고령자나 혼자 사는 주민을 위해 노후 전등(센서등, 십자등)을 교체해줬다.

김채석 지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장면 귀농귀촌 재능기부단은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한 자발적 봉사단체로, 현재까지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수산공익직불금 본격 접수

오는 7월 31일까지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 일정 기간 이상 승선·근로한 어선원, 그리고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접직불금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 어선원 직접직불금은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어가 내 구성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직불금 신청연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나 어선원 직불금 등 다른 유사 직불금과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학교지원단 위촉 및 정기회의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지원

고창군이 7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제8기 학교지원단 위촉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단은 관내 40개교 학교교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 1회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에 위촉되었던 학교지원단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관내 학교교장 40명을 2년 임기로 재 위촉하며 협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회의는 지원단 소개 및 안내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논의, 향후 활성화 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단원들은 최근 청소년 문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치료 연계,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창고등학교 교장 배준기 단장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 청소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청소년안전망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해야 할 핵심적인 보호 체계”라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전략과, 농촌 일손돕기 추진

영농철 맛이 봉사활동

김제시 새만금전략과는 지난 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청하면 지역 농가를 찾아 모판 벌레 파종 작업을 지원하는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새만금전략과 직원 7명이 참여했으며, 벼농사의 시작 단계인 벌레 파종 등 모판 만들기 작업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김제=온봉기 기자

청하면 농가주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직접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은 “이번 파종 작업 일손돕기가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미래산업 투자 관련 협력 건의

새만금개발청 AI·수소 등 현안 청취 및 의견 논의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장(천용희), RE100 신속추진단장(김인) 등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권역 투자계획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 부안군은 새만금 권역 내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상생과 산업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산업 및 기업이 부안 권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수소·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와 관련해 새만금 권역 내 연계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안군도 관련 산업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6일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권역 투자계획 추진현황과 지역 연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부안군>

아울러 부안군은 새만금 기본계획(MP)과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수소(1톤/일) 및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향후 수전해시설 등 관련 기반시

설의 부안권역 유지를 건의했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새만금 권역 대규모 투자가 지역 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 연계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

마을권 연무소독 강화 친환경 포충기 확대 설치

고창군이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과 친환경 포충기 확대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10월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기간으로 지정, 576개 행정리, 1416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권역별 방역기동반 5개반을 운영한다. 특히, 모기 유충서식지 제거를 위해 하천변, 공원,

주거 밀집지역, 쓰레기 집하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친환경 해충 방제 강화를 위해 포충기를 115대로 확대(10대 추가설치) 한다.

친환경 포충기는 자외선램프를 활용, 화학약품 사용 없이 해충을 유인, 포획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창군은 ‘내 집 앞 고인 물 없애기’ 주민 참여 홍보를 병행 추진해 생

활 속 방역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충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에게도 생활 주변 고인물 제거, 방충망 점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조달청 혁신제품 공모사업 선정

경로당 내 혁신제품 도입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부안군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년 2차 혁신제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 1억 9천 8백만원으로 관내 경로당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갖춘 혁신제품을 도입,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혁신제품은 ㈜클리어창이 공급하는 환기장치인 화창으로 창문 틈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품은 미세먼지 방진망을 적용해 황사, 꽃가루 및 초미세먼지를 일정 부분 차단하면서도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인 ㈜클리어창은 학교 및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 미세먼지 방진망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당

방문을 통해 설치 여건을 사전 확인하고 제품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순창군, 기본소득 선순환 ‘연대장터’ 개최

### 풍산면서 ‘상생이음 연대장터’ 생산·소비 잇는 공동체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조직 33곳 참여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군은 오는 9일 풍산면 산울림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통해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경제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주민 삶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풍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장터는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형 생활장터로 운영된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번 연대장터는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순환과 공동체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장터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취나물, 고사리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떡볶이, 수제요거트 등 다양한 먹거리와 고추장·된장·딸기잼 같은 가공식품이 판매된다. 또한, 단순 판매 중심 행사 이외에 주민 참여와 교류에 초점을 맞춘 점도 특징이다. 어반스케치와 민화보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오감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버스킹 공연이 함께 운영되며, 참여 농가와 단체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경품 이벤트도 더해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장터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가 곧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공동체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대장터는, 기본 소득이 단순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 안에서 사람과 사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



<사진=순창군>

형 경제 모델과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터를 주관하는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교통약자의 장터 참여를 위한 수요맞춤형 순회버스를 운영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풍산면 산울림센터 앞에서 열리는 이번 장터는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형 생활장터로 운영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청년이 만든 정책 ‘문화드림’ 확대

### 참여예산 통해 청년이장단 제안 문화포인트 20만원 상향 지원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2026년 완주 청년 문화 드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정책 이장단이 직접 제안하며 시작됐다.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작년 대비 5만 포인트를 상향했으며,

최초 선발된 청년에게는 1인당 2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으로 총 250명을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15일까지 완주군청 누리집 및 청년 메카 완주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선정 결과는 6월 초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된 문화드림 포인트는 올해 6월

부터 9월까지 온라인 복지포털에서 사용하거나, 오프라인은 농협카드를 발급받아 완주군과 전주시의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재운 행정자치국장은 “문화드림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리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춘향제 폐막... ‘백년 향한 글로벌 축제’ 도약 선언

### 7일간 대장정 5천여명 함께 마무리 전통·현대 어우러진 프로그램 호평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제96회 춘향제가 지난 6일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폐막식은 시민과 관광객 등 5,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전 공연, 기념식, 한복 퍼포먼스, 폐막 공연, 불꽃쇼 순으로 진행되며 춘향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세계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100회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은 가야금 연주자 윤자민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상영된 제96회 춘향제 영상에서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춘향제향, 춘향가니발 대동길놀이,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 등 축제의 주요 장면들이 소개되며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다시 한번 전했다.



제 96회 춘향제 폐막식 비전선포

<사진=남원시>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남원시장이 ‘춘향관을 열다’를 주제로 춘향제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문화축제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한복 퍼포먼스에서는 한복디자인 김혜순 명장과 제49회부터 제94회까지의 역대 춘향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춘향이 지닌 아름다움과 품격, 우리 전통의 멋을 감각적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어진 무대에서는 국악인 김준수가 가수가 아닌 무용수로서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폐막 행사 마지막에는 광한루원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쇼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춘향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00회를 향해 나아가는 춘향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통문화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주거 환경 개선

### 총사업비 10억원 투입 추진 우선지원가구 철거비 전액 지원

완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철거·처리, 비주택(축사·창고 등) 철거·처리, 지붕개량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주택 철거 352만 원, 지붕개량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경우 가구 규모 없이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하며, 모든 항목에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 사업비 또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슬레이트는 노후화될 경우 석면 가루가 비산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주민 체감형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산림조합, 옥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 지역 인재 육성 5천만원 전달 12년간 총 4억 지원 이어와

순창군은 지난 6일 순창군 산림조합(조합장 김정생)이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 지도와 조립사업을 통해 입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으로 입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학금 기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순창군옥천장학회에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사진=순창군>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생 조합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과 꿈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여성새일센터, 로컬푸드 창업 아이템 발굴

### 지역 농산물 활용 식품 개발 교육 품평회에서 시장 진출 가능성 점검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완주여성새일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 교육 훈련을 운영하는 가운데, 최근 '로컬푸드 페어링 마스터 창업 과정'(총 215시간)을 마무리하고 교육생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품평회를 열어 그간의 결실을 확인했다. 이번 과정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식문화 교육 내용 기획, 창업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중점을 둔 '로컬푸드 페어링 마스터'는 단순 조리를 넘어 지역 농산물에 이야기를 입히고 차별화된 식문화 교육 내용을 기획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어울림 식단(페이어링 메뉴)을 개발했다. 품평회에서는 직접 기획한 식단을 선보이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개인 창업 또는 공동체 구성을 통해 완주 지역 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지역 농가와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미현 완주여성새일센터 팀장은 “앞으로도 개인 창업뿐 아니라 공동체 기반의 협업 모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축제서 '미래 식량' 곤충산업 홍보

### '황금고소애' 체험부스 큰 호응 식용곤충 인식 전환 브랜드 제고

남원시 주최 제96회 춘향제에서 미래 식량 자원 곤충산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단백질, 남원 황금고소애' 부스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의 영양성과 산업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체험·시식 행사를 마련했다. 고소애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 미래 식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죽이자기', 원광대의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충 특유의 향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식 행사 참여자 대상 스티커 투표에서는 “맛있다”는 의견과 “구미의향 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스에서는 곤충 키링 만들기과 풍선 증정 행사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또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아직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으나 영양 가치와 친환경성에 관심을 보인 응답도 많았으며, 선호 제품 형태는 영양제형과 간식형 순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 부스가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군, 신협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5월부터 원스톱 발급 서비스 관내 무인민원기 8대로 확대

순창군은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순창신협협동조합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6일 순창군청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종국 순창신협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로 인근 주민들이 신협 방문 시 각종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발급기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협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5월 6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신협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특히 이번 발급기에는 △장애인용 키패드 △점자 스티커 △셀렉터 가이드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강화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치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8대로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올해 이후 사업 종료”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

###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5억 2,150만 원을 투입해 엔진 교체 27대와 전동화 개조 2대 등 모두 29대의 건설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진 교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이고, 전동화 개조 지원대상은 전동화가 가능한 지게차 모델의 소유자이다.

엔진교체의 경우 올해까지만 사업비가 지원되고 사업 종료된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엔진을 교체·개조하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무운행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로 완주군청 6층 지원순환과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엔진교체가 올해가 마지막 해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유소년 드론 챌린지 성황 90여명 초등학교생 참가 ‘열기’

남원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춘향제 행사장 내 '사람의 광장'에서 개최된 '남원시장배 유소년 드론 챌린지' 대회에 관내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제96회 춘향제 및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된 이번 대회는 남원시가 추진해 온 '찾아가는 드론 교실'과 연계한 실전 대회로, 관내 10여 개 초등학교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에 안전성이 검증된 에어바운스 경기장에서 LED 게이트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 결과, 우수한 조종 능력을 선보인 2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로는 △금상 6명 △은상 6명 △동상 8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입문 교육(찾아가는 드론교실)-현장 체험-실전 대회(리그)'로 이어지는 남원시만의 유소년 드론 스포츠 선수권 체계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회 현장에서 운영된 상설 체험 부스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드론 스포츠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남원 금지면서 '농촌 왕진버스'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남원 춘향골농협이 공동 추진하는 '찾아가는 농촌지역 왕진버스 & 행복 만리길'이 7일 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의료와 복지·상담·여가 프로그램을 결합한 현장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의료 접근성 부족과 생활 불편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왕진버스를 활용한 진료 서비스와 함께 구강검진, 시력검사 등 기본 건강서비스가 제공됐으며, 돌봄종합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한 건강 프로그램과 도어벨 만들기, 편백나무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 여가활동이 병행 운영됐다. 주민들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하며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체험할 수 있었다.

서양열 원장은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 드론 활용 친환경 방역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하천가와 우거진 수풀 등 차량과 인력 접근이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2026년 친환경 드론 방역 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하천가와 수풀이 우거진 습지 등 기존 방역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방역 대상 면적을 확대해 관내 7개 읍·면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했다.

드론 방역은 험지와 광범위한 하천 주변 수풀 지역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하며 약제를 살포하는 첨단 방식으로, 해충의 주요 서식지인 습지와 수풀 지대, 하천 주변 웅덩이 등에 정밀 살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기 및 갈따구 유충 등 각종 유해 해충을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방역 시간을 단축해 기존 인력 중심 방역의 한계를 보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표창 수여

임실군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난 6일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심민 임실군수와 유효선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수여하게 되었으며 군 3명, 교육지원청 2명의 모범어린이를 추천받아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군은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권리주체로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등을 선정해 표창을 해오고 있다.

이번 대상자는 한은유(임실초), 박하진(오수초), 노경준(임실초), 이소율(임실기림초), 왕정승(성수초)이다.

심민 군수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과수 '돌발해충' 대응 농가 방제 약제 지원

진안군이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약제 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방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사과,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등 15종의 과수를 재배하는 373 농가(총면적 142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급되는 약제는 모스피란, 세티스, 펜텐, 트랜스폼 등 돌발 해충 방제에 등록된 약제 품목들이다.

군은 돌발 해충의 발생 시기에 맞춰 적기 방제를 위해 5월 중순 이후부터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농가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돌발 해충은 이동성이 강해 개별 방제보다는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군은 약제 공급과 병행해 5월 중 하순경 '공동방제'를 독려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장수, 농가 경영 안정·안전 확보

### 임실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5월 15일까지 접수 최대 1만리터 신청 가능

임실군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6개월분에 대한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유종별 지원단가는 리터당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1.2호) 52원이며,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와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최대 1만리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5일까지 신청서, 개인 정보동의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면세유 지원금을 적기에 공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영농철 농작업 안전컨설팅

농업현장 재해 예방 강화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만)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컨설팅'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군은 지난 1월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총 110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농장별 작업환경을 세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전문 안전관리자가 지속

적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 진단 △개선방안 제시 △사후 이행점검 등 총 3단계 과정을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농가별 특성과 작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수만 소장은 "영농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지원

### 지역 내 기업·소상공인 대상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무주군이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법인이 4월 말에서 7월 말, 개인은 6월 1일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납세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된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 보면 된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고, 형편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2026 임실N장미축제' 첫 개최

###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150여 종 약 2만 주 장미 만개

임실군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만여평 대지에 한상적으로 피어난 장미꽃 향연이 될 '2026 임실N장미축제'를 처음 개최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이번 축제는 임실군이 처음 선보이는 장미를 테마로 한 축제로, 만개한 장미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풍경과 치즈테마파크의 이국적인 경관이 어우러져 울분 가장 화려한 꽃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제의 주 무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약 6만 5천㎡ 규모에 총 150여종, 2만 2천여 주의 유럽형 장미가 식재된 대규모 정원이다.

축제 기간인 5월말이면 형형색색의 수만 송이의 장미가 절정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압도적인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사계절 장미원과 유럽형 정원이 어우러진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마치 유럽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어디서 찍어도 작품이 되는 환상적인 포토존을 선사한다.



임실군이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026 임실N장미축제'를 처음 개최한다 <사진=임실군>

이에 더해 수국과 다양한 조화류를 추가 식재하고 감성 조형물과 포토존이 더해져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축제장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장미를 테마로 한 거리 퍼레이드인 '로즈퍼레이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로즈 스트리트 아트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사랑을 전하는 '임실N프로포즈데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제 전반에 활기를 더한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시크릿쥬쥬·

또봇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공간인 '장미비리지'도 운영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며진다.

공연무대 라인업 또한 기대를 모은다. 축제 이틀날인 29일 개막공연에는 이찬원, 손태진, 전유진, 김다현, 신유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30일에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로즈 음악회'가 장미꽃과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물' 가정의 달 특별 할인 이벤트

### 최대 25% 혜택 제공 20% 할인쿠폰·5% 적립 포인트 고사리 껌기 등 체험 운영

장수군은 지난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군 농특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에서 최대 25%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장수물 회원에 대상으로 전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쿠폰과 5% 적립 포인트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역상품권 chak 카드로 총선

후 모바일 결제 시 추가 10% 할인 혜택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높였다.

봄철을 맞아 장수물은 두릅, 취나물, 머위 등 자연산 산나물을 비롯해 블루베리, 버섯 등 신선 농산물과 장수산 참깨·들깨·흑임자로 착유한 기름, 미소가루 등 건강 먹거리를 신규 입점해 상품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장수물은 고사리 껌기와 다슬기잡기 체험 예약을 받고 있으며, 농특산물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수확시기에 맞춰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

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상품을 통해 장수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온라인 판매 확대와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 관리와 배송 서비스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2026 무주 덕유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무주군 산악자전거메카도약 ~덕곡임도~용추폭포공원~사탄마을~신무임도~마암마을~주교마을~주교임도~안성체육공원까지 34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2026 무주 덕유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오는 10일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아이앤지스포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무주군의 산악자전거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와 대회 운영 능력을 전국에 알리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선수 및 대회 관계자 5백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대회는 오전 9시 안성체육공원을 출발하는 여정으로, 선수들은 중산교차로를 거쳐 상산마을~덕곡마을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대응 합동 대책회의

사전 관리·신속 대응 강조

임실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개 협업부서,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박현숙 부군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 긴급 대응 체계와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 1.~10. 15.)에 맞춰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사전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보완사항과 비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와 신속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군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하천 범람 우려 구간, 배수 취약 저지대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는 등 협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재정검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혼선 없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2026년 집중 안전 점검 실시

무주군은 내달 19일(61일간)까지 6개 읍면 92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을 살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투입돼 기술적인 부분의 점검을 더욱 내실 있게 할 방침이다.

7일에는 노창환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 점검반이 남대천교 보수·보강 공사(1. 6.-6. 29.) 현장을 찾아 매뉴얼 준수 여부와 공사 기간에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남대천교는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동이 잦은 핵심 공간인 뿐만 아니라 생활권과도 밀접해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점검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작은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귀농·귀촌인 주거난 해소 나선다

맞춤형 매입대주택 사업 추진

진안군이 인구감소 대응과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주거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군은 귀농·귀촌인과 농촌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학교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이다.

현재 오전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1명에 불과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주거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학생 수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규모는 총 30호로 △귀농·귀촌 20세대 △농촌유학 가족 1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5월 중순경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7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시 공직자들, 연이은 장학금 기탁

정읍시 공직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연달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박선정 문화예술과장과 박동우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부부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과장의 부친상 조의금 일부를 지역 인재를 기르는 데 활용해 달라며 장학금을 쾌척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고인경 동학유산과장과 심재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부부가 과장의 모친상 조의금 가운데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냈다. 정읍시 공직 사회 안에서 모범적인 나눔 실천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부금을 전달한 공직자들은 "조문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다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장학금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면서 "지역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LH삼봉사회복지관, 삼례초에 응원 메시지 전달

완주군 LH삼봉사회복지관(관장 임평화)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완주군 삼례초등학교 한마음관 앞에서 아동을 위한 간식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김민에 삼례초등학교 교육복지사와 협력해 점심시간에 맞춰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아동들에게 간식 꾸러미를 건네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성장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현장에는 어린이날 기념 포토존도 함께 조성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복지관 직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어린이날 축하해요"라는 인사를 전하며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간식을 전달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 출향인·지역기업 대표, 각각 1천만원 기탁

부안마실축제로 기부 이어져

부안군은 지난 2일 열린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인천호남향우회장이자 ㈜에스오팜을 운영하는 오명석 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장이자 부안유통을 운영하는 임장섭 대표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명석 회장은 2023년부터 매년 500만 원씩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고향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임장섭 대표는 지역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이날 1천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 대표의 독려로 본사와 지사 임직원들이 함께 총 1천만 원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이끌어 온 바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가 더해진 부안마실축제는 많은 관광객과 군민의 참여 속에 성대히 마무리됐다. /부안=윤봉기 기자



감사 손편지 들고 시청 찾은 익산송리유치원 원아들

익산송리유치원 원아들이 7일 익산시청을 찾아 손편지와 직접 만든 기념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익산시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어린이 안심놀이터에 차양막을 설치한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양막 설치 지원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시청을 찾은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직접 쓴 감사 편지와 정성껏 만든 기념품을 시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편지에는 "햇볕이 뜨거워도 시원하게 놀 수 있어서 좋다"는 등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훈훈함을 더했다.

편지 전달식을 마친 원아들은 새롭게 단장한 익산시청 곳곳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곳곳에서 이웃 위한 온정 나눔 펼쳐져

평화모현·오산·용동·황동

가정의달을 맞아 7일 익산 곳곳에서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졌다. 이날 평화동에서는 밀 반찬 나눔이 진행됐고, 모현동·오산면·용동면·황동면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평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종옥)는 경로당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70세대를 대상으로 정성껏 마련한 밀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성숙·최병철)는 '감사드림

(Dream), 어버이날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15가정을 직접 방문해 카네이션과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오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홍공숙)도 '사랑의 효(孝)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노인 150여 가구에 카네이션과 과일, 떡 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용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미희)는 새미르휴센터에서 노인 120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

황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장선중)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노령계층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K-water 기술 군산사업소, 재능기부 자원봉사

군산시 해신동은 7일, K-water 기술 군산사업소(소장 유민) 임직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유민 소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장

계마을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로, 노후화된 주거 시설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방문한 봉사단은 일상생활과 직결되지만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방치되어 있던 수전 배관 공사를 실시하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꼼꼼한 전기 안전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남원 죽향동,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림' 행사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은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권)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 드림'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평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풍년제과하정동커피의 제과 꾸러미 후원으로 더해져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직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카네이션과 제과 꾸러미를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담소를 나누는 등 정서적 돌봄 활동도 함께 펼쳤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자식처럼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안부를 물어주니 외로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장수 장계면지사협, '고독제로 프로젝트' 추진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고독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계면이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함께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외부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말 요양소인 '소풍마사'에서 말과 교감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말 쓰다듬기와 빗질, 먹이 주기, 산책 등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를 이어갔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Large graphic with fire and firefighters, titled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 (Spring Fire Prevention). It includes four icons with text: 1. No smoking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2. No open flames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3. No fire (쓰레기 소각 및 논 밭 태우기 금지), 4. No candles (외출, 취침 전 촛불 끄기 (발침대 고정 후 사용)).

〈一事一言〉



김관영의 고독한 결단, 전북 자존심 다시 세우는 신호탄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최근 전북 정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시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전격적인 제명 결정과 이에 맞선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전북이 처한 현실과 미래를 묻는 중대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았다. 필자는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사태가 전북을 중앙 정치의 허부 조직이나 거수기로 여겨온 거대 정당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의 성지' 혹은 '철벽 텃밭'이라는 수식어 아래 안주해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중앙 정치권은 전북의 표를 '당연한 내 것'으로 여겼고, 공천 과정은 도민의 뜻보다 당대표의 입맛이나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쳤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벌어진 이번 기습 제명 사태는 그 정점이다. 현직 지사를 단 몇 시간 만에 광야로 내모는 비정한 정치는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폭격과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수장을 뽑는 기준이 왜 여의도 밀실의 심기 살피기가 되어야 하는가. 도지사라는 자리는 특정 정당의 줄 세

우기에 성공한 이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 아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유능한 행정가를 도민 스스로 선택하는 주권 행사의 장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깨져야 한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은 지역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버섯일 뿐이다. 당적이 실력보다 앞서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도민에 대한 헌신보다 높게 평가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이라는 고독한 길을 선택한 것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기보다 도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통해 '증명'하겠다는 배수의 진이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를 포함해 총 27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라는 전례 없는 실적을 거두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제 지사'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러한 성과가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때문에 중단되거나 폄하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정당 정치'와

'실용적인 미래 인물' 사이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도민들은 이제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누가 전북의 먹거리를 가져올 사람인가, 누가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사람인가. 당대표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 지사가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지사가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김 지사의 독자 행보는 전북판 '제3세대'의 결집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다. 공천(公薦)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된 정당 정치를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때, 비로소 정치권은 전북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민주당이 버린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우리 스스로 '누구의 사람'이 아닌 '전북의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다.

이제 6월 3일, 전북은 위대한 선택의 날을 맞이한다. 이번 선거는 중앙 정치의 황포에 맞서 전북의 주권을 되찾는 '도민 해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등판이 불러온 이 신선한 균열이 전북 정치를 고이게 만든 썩은 물을 걷어내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 지평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북의 주인은 정당도, 당대표도 아니다. 오직 전북 도민뿐이다.

| 독자투고 |

고유가 시름 덜어줄 지원금, '의심' 한 번이 재산을 지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보이콧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치밀하다. 주로 '귀하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선착순 접수 중'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에 외부 연결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기 예방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 등은 공식 앱이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지만,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며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연락처, 사진, 금융정보 전체가 탈취될 수 있다.

둘째,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예치금을 송금하라는 요구는 명백한 범죄 수법이다.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의심될 때는 즉시 확인하고 차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즉시 차단하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미 링크를 클릭했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전원을 끄고, 다른 전화를 이용해 경찰청(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센터(1394)에 신고하여 지급정리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은 서민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는 만큼, 시민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와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현주

요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보이콧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설

교육감 선거인가, 교육 권력 재탈전인가

전북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본질을 잃어 가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전북 교육의 방향을 논해야 할 선거가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세력 간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전직 교육감과 교육관료, 교원 조직이 얽힌 진영 싸움만 난무하는 모습이다. 이쯤 되면 교육감 선거인지, 또 하나의 정치 선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교육 정책과 철학으로 평가받으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특정 세력의 계승자, 누구의 사람인지가 선거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정책은 구호로 소비될 뿐이고, 선거판은 조직 동원과 줄 세우기 경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다.

더 심각한 것은 정작 전북 교육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학력 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무너진 교권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AI 시대 교육 혁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농산어촌 학교 붕괴와 학생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후보들은 미래 비전보다 세력 결집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감 자리는 특정 진영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전북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다.

지금처럼 선거가 정치판을 닦아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번 교육감 선거만큼은 조직과 계파가 아니라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전북 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오늘의시

나무를 위하여 / 신경림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솔잎혹파리가 숲을 휩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의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마디마디 세우고 스치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병들고도 남는 게 있다면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빛마저 곱습니다
먹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 써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앞을 물들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원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 전북 Times

# 청년이 모여 만든 변화, 김제 죽산 “청년마을”로 완성하다!

김제시 죽산면이 단순한 농촌을 넘어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하는 새로운 지역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그동안 죽산 일대에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은 3년간 국비 6억원이 지원되며 전국 10개소만 선정되는 사업이다. 김제는 FLD 스튜디오와 오후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논논(nonnon) 청년마을’이 선정되며 김제 최초 청년마을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의 의미는 단순한 사업 확보를 넘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역의 작은 변화가 ‘정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편집자주)



## 김제시,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선정 기존 정책과 결합한 정착형 모델 구축

■ 청년이 움직인 변화... 죽산에서 시작된 가능성

죽산의 변화는 청년과 민간의 움직임에서 시작했다. ‘청년예비창업가 지원사업 힛트’ 선정으로 창업지원금 지원을 받아 2021년 요촌동에 트윈 스테이블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한 서수인 대표는 최별 대표와 협업해 2022년 죽산으로 근거지를 옮겨 청년창업가들과 연계하고 소통하며 청년창업가들로 이뤄진 오후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청년창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별 대표의 ‘오느른’과 같은 로컬 콘텐츠 활동은 마을주민들과 김제평야의 일상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확산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수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방문으로 이어졌고, 죽산은 점차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죽산의 공간들은 콘텐츠 공간, 체험 공간 등으로 재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살아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험을 거쳐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이 실제로 지역을 찾아 체류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면서, 콘텐츠가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 정책이 더해진 죽산, 머물수 있는 조건을 만드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죽산에 김제시는 생활·정주·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공간정비 및 재생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반을 동시에 확장해 왔다.

여기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죽산 일대에는 점차 사람들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죽산에는 10여 개 이상의 청년 창업공

간이 형성되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변화가 가시화되며, 죽산은 단순히 방문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 청년마을, 기존 사업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

이번에 선정된 ‘논논(nonnon) 청년마을’은 이러한 흐름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류형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청년을 유입하고, 지역을 찾는 청년들은 단순 체험을 넘어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생산하는 주제로 참여하게 된다. 이후 마을 방송국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의 일 경험을 쌓고, 우수 참여자는 ‘평야 인턴십’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내 일자리로 연결되어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마을방송국 ‘논논’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수익화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요촌·죽산·부랑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을 구축해 청년의 활동과 생활이 특정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에 조성된 주거 공간과 상권, 관광 자원과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죽산 전체를 하나의 청년정착 생태계로 작동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유입에서 정착까지, 김제형 정착 모델 청년 마을로 완성

시는 이번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빈집과 주거사업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창업과 상권 사업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에 콘텐츠와 관광 사업이 결합되며 외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관계 형성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완성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청년마을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산에 축적된 정책과 민간 활동을 하나로 묶어 유입-체류-정착-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 청년이 시작하고 김제가 완성하여 김제 전역으로 확산!


시는 이번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이 먼저 만들어낸 변화 위에 정책을 더해 지속가능한 김제형 표준 정착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죽산에서 검증된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김제 전역으로 확산해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며 삶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순창 용굴산 하늘길


○ 이용시간 : 09:00~17:00(3월부터~11월), 09:00~16:00(12월~2월) ○



자연을 품다



정상에서 서서



치유의 숲

○ 입장료

구분	입장료		순창사랑상품권 환급
	개인·단체	무료 입장객	유료 입장객
성인·학생	4,000원	만6세이하, 7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순창군민 등	2,000원

○ 문의전화 : 063-650-5660(용굴산 매표소)

○ 주 소 :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540